

# 포브스, 美 글로벌 리더 명상에 주목

### “명상, 기업문화에서 급진적인 진리이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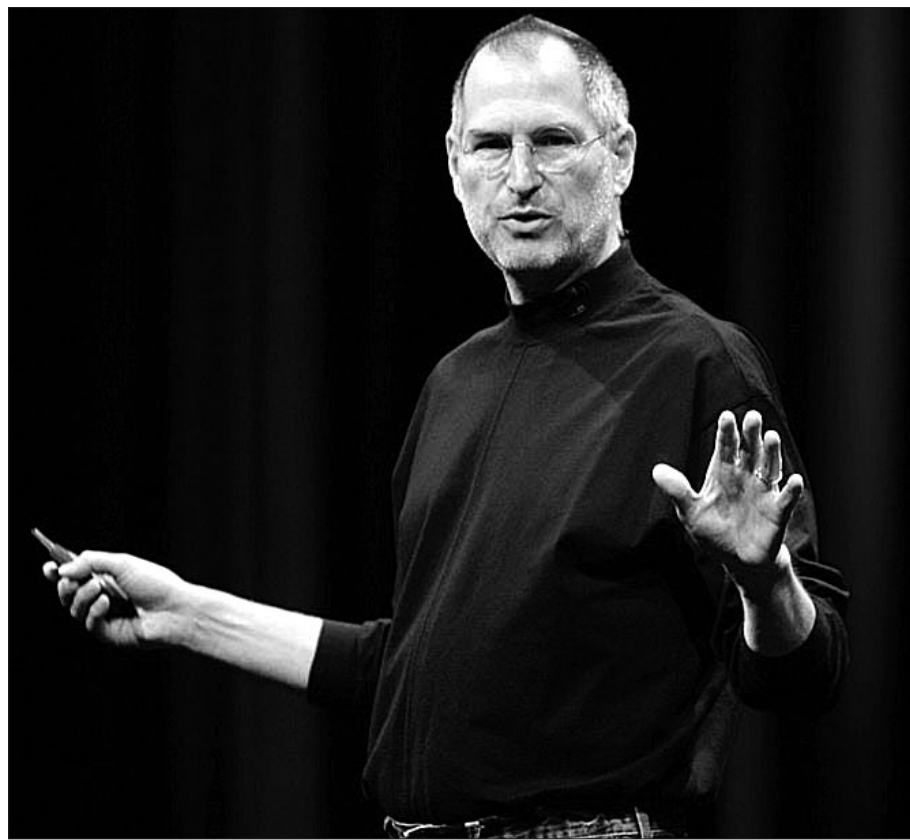
서양의 글로벌 리더들은 왜 명상에 빠져드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세일포스(Salesforce) CEO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링크드인(LinkedIn) CEO 제프 와이너(Jeff Weiner), 브리지워터(Bridgewater) 창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글로벌 리더들 역시 명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성공에 명상의 수혜가 적지 않다’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Forbes)지는 “진흙탕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야말로 비즈니스에 가장 큰 덕목”이라는 마크 베니오프의 말을 인용하고 “글로벌 리더들은 ‘절규의 현장에서 명상이라는 침묵을 통해 자신은 물론 조직은 안정까지도 찾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리더에게 명상이란 웰스트리트의 블루칩과 같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웰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성공의 가장 큰 영향분을 가져다 준 연 명상”이라고 말했던 브리지워터(Bridgewater) 창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 회장이 직원들에게 명상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달리오 회장은 “명상은 직장 문화에서 급진적인 진리이자 변화 그 자체”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와 ‘변화’의 힘이 지원을 성장하게 하고 기업 역시 동반 성장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유쾌한 사원(official Jolly Good



스티브 잡스는 ‘명상과 비즈니스’를 결합시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든 CEO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이끌었던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라는 광고로 세상에 존재를 알렸는데, 그 중에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 글로벌 리더에게 명상은 웰스트리트 ‘블루칩’ 과도 같아

### 절규 현장에서 명상 통한 침묵으로... 경영자는 물론 조직 안정 갖게 해

Fellow)을 선출하고 있는 구글(Google)에서 근래 명상을 하는 직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14년 ‘유쾌한 사원’ 토마스 켄턴(Thomas Kenton) 씨는 “명상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루기 힘든 사람이나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큰 힘이 되는 데, 이 때문에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 문화에서 명상

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고 전제한다 (Forbes) 지는 “기업 문화 속에서 명상은 ‘집중’ ‘침묵’ ‘관계’ ‘건강’ 등의 아이콘으로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다”며 “명상은 △정규를 정원으로 만들고 △소통의 관계를 계발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정규를 정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친절과 연민으로 커뮤니티 프레임을 변화시켜 경쟁이 아닌 공생의 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통의 관계를 계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변 모두의 것에 마음을 열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명상은 통찰력을 키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주변 모든 것과의 소통을 통해 통찰력을 키우고 결국 그 힘은 개개인에게 창의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마지막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은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명상은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Forbes) 지는 리더십 전도사인 롭 에시 가르(Rob Asghar) 작가의 말을 인용, “미국 사회 곳곳에서 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1500만명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증가했고, 33개국의 250개 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수량적 변화만 놓고 보아도, 서양의 글로벌 리더들이 ‘명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2017년 모스크바에 첫 불교 사원 생겨

### 모스크바 두마 위원회 “내년 3월 첫 삽”



모스크바 첫 불교 사원에는 높이 5m 규모의 불상이 봉안되고 예불공간, 명상공간, 종교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교회의 요람 모스크바에서 3년 후면 ‘아침 예불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불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모스크바 시민들을 설득하길 2년 남짓, 모스크바 두마(Duma) 위원회가 10월 30일 불교 사원 건립을 최종 허가했다.

(Izvestia) 지는 “모스크바의 첫 불교 사원이 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2015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며 “모스크바 시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들어서는 불교 사원은 러시아의 종교·인종 다양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도 ‘국민’으로서 보호와 지원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다. 두마 위원회의 레나트 라이셰프(Renat Laishiev) 의장은 “두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등에 이어 모스크바에도 불교 사원이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Izvestia)지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번화가인 오토레드노예(Otradnoe) 지역에서 2015년 3월 공사를 시작하는 불교 사원에는 높이 5m 규모의 불상이 봉안된다.

또한 예불 및 명상 공간은 물론 티베트의 전통 의술, 특히 침 시술을 할 수 있는 치유 공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투비니안(Tuvinian), 브리야트(Buryat)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모스크바에 공존하는 다른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선다.

### 한화 약 62억원 소요 예정

### 예불·명상·치유 공간 마련

레나트 라이셰프(Renat Laishiev) 의장은 “2억 5천만 루블(한화 약 62억 원)이 소요될 불교 사원 건립에는 모스크바 시 당국의 예산 지원과 기부금 모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모스크바 시민의 찬반논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불교 사원 건립 계획’은 ‘불교 사원과 함께 종교문화 복합공간도 함께 건립하는 두마 위원회의 복안으로 모스크바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노부부 미국서 노천법당 만들어 지역 불심 잡다

### 미시시피 파인빌 불상 봉안...10월 10일 첫 대중법회 열어



에디 라시니 씨가 파인빌 대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라시니 씨는 6년 전 이곳에 불상을 봉안하고 매일 두 차례 예불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이곳에서 파인빌 사상 첫 대중 법회가 동행했다.

미시시피 주 남부의 한 마을인 파인빌(Pineville)에서 베트남계 노부부의 노천 법당이 화제다.

(Sun Herald) 지는 10월 28일 “베트남계 미국인 노부부의 노천 법당이 지역 주민의 이목을 잡고 있다”며 “에디 라시니(Eddy Lashney) 부부의 신형인 파인빌 지역의 불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파인빌 대로(大路)변에 인접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에디 라시니 부부는 6년 전 파인빌 대로와 맞닿아 있는 자신 집 앞마당에 불상을 봉안하고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대로를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관심을 보이는 주민도

생겨났다. 개중에는 불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 앞마당에 불상을 모신 게 포교의 단초가 되었다”는 에디 라시니 씨는 “지금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려는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고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후원을 받아 부처님께 향과 꽃을 올린다”고 말했다.

(Sun Herald) 지에 따르면, 라시니 부부의 부처님은 10월 10일 노천 법당과 인연을 맺은 지역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라믹 타일로 단장된 불단에 봉안될 수 있었고, 이날 파인빌 사상 첫 대중 법회가 라시니 부부의 노천 법당에서 동행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님, 물 위를 어떻게 뛰어가나요?” 중국 푸젠성의 남 소림사의 스리랑 스님이 수면 위를 뛰어다니는 전통무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시나닷컴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스님은 이날 수면에서 뛰어다니는 무술을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스님은 두 번의 예행연습 후 관람객들 앞에서 저수지 수면위에 띄워놓은 베니어합판 위를 맨발로 118m를 뛰었다. 스리랑 스님은 물 위를 걷는 비결에 대해 “작은 보폭으로 빠르게 걸되 힘을 발 끝에 주고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전통무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못자리 나무판을 수면에 두고 연습하다 지금은 얇은 베니어 합판을 놓고 수면에서 뛰고 있다. 이나은 기자

#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해조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40,000원

###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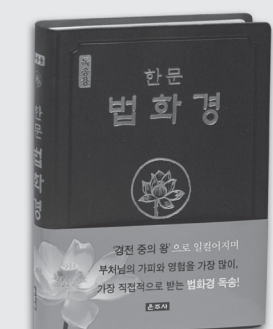
### 운명을 바꾸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가죽)

해조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지퍼: 25,000원



###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1,270쪽  
55,000원